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29 – 5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주는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중심으로

전혜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코호트 2023년도 조사 패널자료 중 사용한 변수에 응답한 발달장애인 4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5.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과 성향점수매칭,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을 경험하는 집단과 미경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t-test를 통해 집단 간 균등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향점수매칭 후의 분석에서 다른 요인보다도 더 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평생교육의 경험이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이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여타 요인보다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앞으로도 질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자아존중감, 행복감, 성향점수매칭

*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시간강사

I. 연구의 필요성

평생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로, 개인적인 이유나 전문성을 위해 자기 주도적이며,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학습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2000). 장애인도 평생교육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20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4%, 비장애인은 43.4%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인식, 2022). 장애학생이 학령기 이후 자기 계발 및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평생교육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장애인은 자기계발과 심리적 만족(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과 삶의 질(전리상, 2022),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이삼미, 정연수, 2022) 목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혹은 현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동의 편의성과 함께 참여하는 수강생과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의 여건이 된다면 참여의사를 보이곤 한다(김기룡, 2020). 이렇게 장애인에게도 배움의 욕구는 있으며,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과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 심리적인 만족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고, 이것이 타인 존중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행복을 이루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심리 요인인데, 비교적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된다(유설희, 김지혜, 임준, 2022).

자아존중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행복은 1980년대부터 정의되어 왔는데, 관계적 행복, 비관계성 행복, 발생하는 행복, 기질적인 행복을 포함한다고 보았다(Davis, 1981). 행복은 삶의 질과 만족도와 함께 연구되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는 장애인의 행복감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심리적인 요인, 관계가 좋은 경우, 취업을 포함한 경제적 여유, 여가를 즐기는 경우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강승원, 2015; 이채식, 김명식, 2019; 황정우, 유수현, 2013; 황정우, 2014).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이 자기결정력(이옥인, 박은영, 신인수, 2011; 하민진, 김정기, 전병운, 2019), 자아존중감(김대룡, 2018; 김대룡 2019; 신윤수, 이숙향, 2024; 강충만, 김경신, 2024; 이미정, 연평식, 2024; 이혜림, 박승희, 2018; 정재원, 2022; 최경희, 오승환, 2022) 등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검증된 결과들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비정규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연구로 다양한 영향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심리적 만족,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오은경, 임원균, 2021; 이삼미, 정연수, 2022;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심리적 효과를 분석하였기에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조사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경험’이라는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을 구분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성향점수매칭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셋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평생교육과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의 관계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된다(법제처, 2024).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3)에서도 제5조 제1항 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고 수정되어 중·고등학교 교육 외에 평생교육도 고등교육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평생교육법(2024) 일부 개정된 부분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장애인은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37.4%로 전체 인구 65.3%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반 정도에 겨우 달하는 실정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장애인은 집에서 지내게 되거나 평생교육으로 활동의 장이 옮겨지는데, 평생교육 기관은 제한된 선택지일 수 있지만(권혁상, 곽승철, 2018) 한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도 배움의 욕구는 있기에 사회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도움받는 곳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이삼미, 정연수, 2022).

10여 년 전부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학생이 성인이 되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별로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발전계획 수립 단계(4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 전담 조직 확대(5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및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수요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6차)까지 받는 것을 목표삼아 발전하고 있다.

차세진과 황순영(2017)은 장애인 평생학교의 교육과정 목적은 장애인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즉,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긍정적 심리, 행복감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목적은 배움의 욕구와(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이삼미, 정연수, 2022) 심리적 만족, 건강한 삶을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오은경, 임원균, 2021; 이윤희, 이인수, 2020;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장애인은 건강한 심리 형성과 건강한 삶을 목표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거나, 이동의 편의성, 교육비, 정보 등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면 과제가 존재한다(김두영, 김호연, 홍재영, 2014; 류재연, 2017; 명소연, 김두영, 2017; 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송인애, 오민석, 2019; 조창빈, 김두영, 2016). 그럼에도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심석순, 2019; 오은경, 임원균, 2021), 자기만족, 행복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비중이 높았다(이삼미, 정연수, 2022;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와 질적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밝혀낸 만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질적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은 있으나 통계적인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평생교육을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균등한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요인 중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 관련 있는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2.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흔하게 연구되는 개념 중 하나이며, 자신에 대해 수용적 또는 거부적인지에 대한 태도의 표현으로 자기를 스스로 유능하거나, 중요하거나, 성공적이었거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박현숙, 양희택, 2013 재인용). 여기서 자아존중감과 감정이 혼동될 수 있는데, 감정은 자아존중감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기 검증의 결과로 볼 수 있다(Cast, & Burke, 2002).

자기 검증을 통해 구축된 자아존중감은 자기 검증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충하고 개인이 정체성을 검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되기에(Tesser, 2001) 모든 사람에게 자아존중감은 주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유설희, 김지혜, 임준(2022)은 주거 빈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기에 더 나은 장애인의 삶을 위한 자아존중감 연구는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주는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장애 수용이 삶의 만족 또는 생활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부분 매개효과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장애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이슬, 전지혜, 2024; 이나연, 임예림, 백성욱, 홍세희, 2024). 그 외에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 등의 관계 형성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박수선, 심다연, 2014; 오지원, 여영훈, 2023; 이민경, 2024). 직업 관련 요인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인데, 박단아, 최진혁(2024)은 직무만족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 취업 관련 요인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박현숙, 양희택, 2013; 전리상, 2023; 조혜정, 윤명숙, 2016).

이렇듯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 관계형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자아존중감은 장애인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Mecca, 1989).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매개하는 변수로 사용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3. 장애인의 행복감

행복감(happiness)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을 느낀다는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으며, Davis(1981)는 개인의 믿음과 욕망, 생각의 관점에서 정의된다고 하며, 관계적 행복, 비관계적 행복, 발생하는 행복, 기질적인 행복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긍정심리학에서 Seligman(2011)은 행복의 요소를 긍정 정서(기쁨, 희열, 따뜻함, 자신감), 몰입, 관계, 의미(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적극적 기여), 성취의 요소로 구분하는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대개 연구에서 행복감은 생활 만족, 주관적 안녕감의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강승원, 이해경, 2016).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박세혁, 이윤정, 서희정, 2023)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황정우와 유수현(2013)은 정신장애인의 행복감 수준은 낮은 편이며, 자아존중감, 정신과적 증상, 동료관계, 취업 여부, 건강, 학력 등의 다양한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박세혁, 이윤정, 서희정(2023)은 팬데믹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지각된 무력감과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경우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외의 선행 연구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는 연령, 건강, 결혼 유무, 사회적 지원, 경제적 궁핍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강승원, 2014; 유향금, 2020; 황정우, 2014). 사회적 참여와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여가(김동원, 2014), 동료관계, 심리, 프로그램 경험(황정우, 2014). 그 외에도 취업 여부를 비롯하여, 임금, 소통과 관계 등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경희, 이채식, 김명식, 2019).

즉, 장애인의 행복감에 취업이나 경제적 상황,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 변수로 하고, 평생교육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패널 4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행복감, 평생교육 참여여부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45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인 가족과의 관계, 친구 유무, 교류하는 친구 수, 차별 경험, 취업 여부를 투입하여 성향매칭분석 후 2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성별은 여정보다 남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대는 20대가 과반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9세 이하의 정규 교육과정 수행으로 평생교육기관과 관련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주말에 종교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20대 이하의 발달장애인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장애는 지적장애인이 자폐성장애인보다 많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고 초졸 이하와 대학교 졸업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0% 이상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기타 시·도, 광역시·도와 경기도, 서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인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에 대한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정보

구분		매칭 전(n=458)		매칭 후(n=220)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43	31.2	72	32.7
	남성	315	68.8	148	67.3
연령	20대 이하	242	52.8	117	53.2
	30대	95	20.7	36	16.4
	40대	54	11.8	34	15.5
	50대	42	9.2	20	9.1
	60대 이상	25	5.5	13	5.9
주된 장애	자폐성 장애	136	29.7	76	34.5
	지적장애	322	70.3	144	65.5

구분		매칭 전(n=458)		매칭 후(n=220)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중복장애	있음	23	5.0	14	6.4
	없음	435	95.0	206	93.6
최종학력	초졸 이하	50	10.9	24	10.9
	중학교 졸업	27	5.9	14	6.4
	고등학교 졸업	330	72.1	161	73.2
	대학교 졸업	51	11.1	21	9.5
배우자	있음	42	9.2	199	90.5
	없음	416	90.8	21	9.5
지역	서울	63	13.8	40	18.2
	경기	99	21.6	56	25.5
	광역시도	125	27.3	55	25.0
	기타시도	171	37.3	69	31.4

2. 분석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으로 먼저, 자아존중감은 ‘1.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2.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4문항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으로 구성되도록 역코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성향점수 매칭 전 .813, 성향점수 매칭 후 .781로 확인되었으며,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변수 합치기를 통해 4문항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행복감은 3점 척도 단일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독립변인은 최근 3년 동안 학교 이외의 기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경험했다는 1, 경험이 없다는 0으로 재코딩 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박수선, 심다연, 2024; 이민경, 2024), 차별 경험(전리상, 2023; 조혜정, 윤명숙, 2016), 취업 여부(박수선, 심다연, 2024), 장애수용(고이슬, 전지혜, 2024; 이나연, 임예림, 백성욱, 홍세희, 2024)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은 장애수용 관련 변수가 없어 이를 제외한 가족과의 관계, 친구 유무, 교류하는 친구의 수,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취업여부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변수 설명

변수		변수설명
종속1	자아존중감	3점 Likert 척도, 3문항 합쳐서 평균점수를 사용
종속2	행복감	1= 전혀 아니다. 2=그냥 그렇다. 3=매우 그렇다.
독립	3년 이내 평생교육 경험 여부	1=있음, 0=없음
통제	가족과의 관계(역코딩)	1=잘 지내지 못한다, 2=보통이다. 3=매우 잘 지낸다.
	친구 유무	1=있음, 0=없음
	교류하는 친구 수	1=전혀 없다, 2=1명~4명, 3=5명~9명
	차별 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1=경험이 없다, 2=드물게 있다, 3=자주 경험 했다
	취업여부	1=취업, 0=미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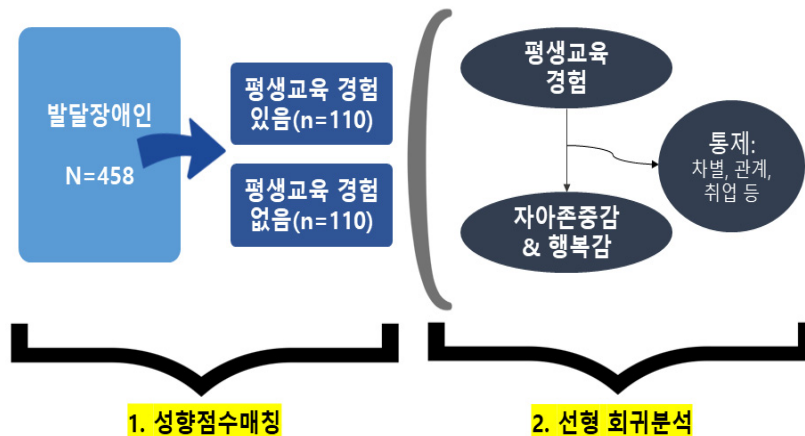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영향을 준다면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분석과 선행회귀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분석 방법인 성향점수매칭은 Rosenbaum & Rubin(1983)이 처음 제안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사용되는 준 실험적 연구 방법이다. 가장 큰 특징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험연구의 무작위 할당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권현정, 조용운, 고지영, 2011).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이질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성향의 데이터로 짝을 지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2023년도 조사 데이터에서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관련된 변수를 추렸으며, 이에 응답한 패널을 458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SPSS 25.0의 성향매칭분석을 사용하여 공차를 0.1로 설정하였다. 수치는 0.1~0.01까지 설정하는데, 0.1에 가까울수록 차이점 한계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은 평생교육 경험 여부(1=경험있음, 0=경험없음)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차별 경험, 가족관계, 친구 유무, 취업 여부, 평소 교류 친구 수를 변수로 하였다. 이렇게 최종 평생교육 경험한 집단 110명, 경험하지 않은 집단 110명, 총 220명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이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t-test를 통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확인 후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평생교육 경험 여부는 독립변수,

그 외에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차별 경험, 가족관계, 친구 유무, 취업 여부, 평소 교류 친구의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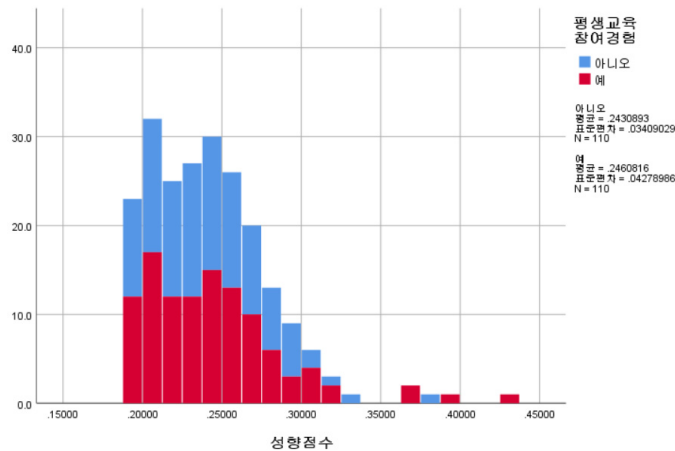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에 따른 성향점수매칭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평생교육 경험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을 동질하게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전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대인관계(가족관계, 친구 유무, 친구 수), 취업, 차별변수를 투입하여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그 결과 모형은 .000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 = .316$). 다만, 평생교육 여부에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들을 평생교육 참여 경험에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성향점수의 차이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그림 2]와 같다.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2460816,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는 .2430893으로 거의 균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성향점수분포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 이후 매칭 질을 확인하기 위해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매칭 전과 후의 t검정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칭 전에도 두 집단이 평균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 집단 간의 표본 수의 차이가 크면 평생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최종 분석하고자 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검정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 경험이 없는 패널 200명 정도의 탈락을 감안하고, 평생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표본 수를 맞추었다.

<표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평균차이분석

변수		매칭 전(m, sd)		매칭 후(m, sd)		매칭 후 t-test
		경험 있음 (n=110)	경험 없음 (n=348)	경험 있음 (n=110)	경험 없음 (n=110)	
대인관계	가족과의 관계	2.70(.82)	2.72(.61)	2.70(.82)	2.68(.83)	.163
	친구 유무	.56(.50)	.53(.50)	.56(.50)	.51(.50)	.809
	교류 친구 수	1.69(.74)	1.64(.69)	1.69(.74)	1.71(.75)	-.182
차별 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1.58(.67)	1.48(.71)	1.58(.67)	1.46(.55)	1.428
취업 여부		.51(.50)	.56(.56)	.51(.50)	.46(.50)	.672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 매칭 전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9.20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9%이며($R^2=.109$, adj. $R^2=.097$),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2.13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평생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6$, $p<.05$). 그 외의 통제변수는 가족관계($\beta=.159$, $p<.001$), 친구 유무($\beta=.139$, $p<.05$), 취업 여부($\beta=.200$, $p<.001$)가 영향을 주며, 이는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에 주는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향점수 매칭 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자아존중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1.525	.154		9.890***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 여부	.147	.068	.096	2.159*	1.007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155	.044	.159	3.549***	1.014
	친구 유무	.182	.077	.139	2.371*	1.732
	교류하는 친구의 수	.010	.054	.011	.184	1.738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001	.042	-.001	-.021	1.037
	취업 여부	.262	.060	.200	4.395***	1.045
R^2		.109				
adj. R^2		.097				
Durbin-Watson		2.131				
F		9.203***				

* $p<.05$, *** $p<.001$

다음으로 성향점수 매칭 후 자아존중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7.65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7%로($R^2=.177$, adj. $R^2=.154$), 매칭 전보다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1.89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의 회귀분석은 매칭 전보다 평생교육 경험이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다른 통제변수보다 더 큰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226$, $p<.001$). 그 외의 통제변수는 가족과의 관계($\beta=.131$, $p<.05$), 취업여부($\beta=.179$, $p<.01$)도 발달장애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향점수 매칭 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자아존중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1.624	.180		9.030***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여부	.265	.074	.226	3.589***	1.023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093	.045	.131	2.087*	1.013
	친구 유무	.169	.096	.144	1.769	1.706
	교류하는 친구의 수	.075	.064	.094	1.171	1.685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081	.063	-.084	-1.287	1.105
	취업 여부	.210	.076	.179	2.759**	1.087
R^2		.177				
adj. R^2		.154				
Durbin-Watson		1.891				
F		7.657***				

* $p<.05$, ** $p<.01$, *** $p<.001$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 매칭 전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11.72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5%이며($R^2=.135$, adj. $R^2=.123$),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1.886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전 평생교육 경험은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통제변수인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beta=.226$, $p<.001$), 친구가 있는 경우($\beta=.226$, $p<.001$),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beta=.226$, $p<.001$)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성향점수 매칭 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행복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1.933	.132		14.622***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 여부	-.018	.058	-.014	-.307	1.007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245	.038	.288	6.542***	1.104
	친구 유무	.221	.066	.194	3.368**	1.732
	교류하는 친구의 수	-.050	.047	-.062	-1.076	1.738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087	.036	-.108	-2.410*	1.037
	취업 여부	.075	.051	.066	1.464	1.045
R ²		.135				
adj. R ²		.123				
Durbin-Watson		1.886				
F		11.721***				

*p<.05, **p<.01, ***p<.001

성향점수 매칭 후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7.4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3%이며($R^2=.173$, adj. $R^2=.150$),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2.02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만, 통제변수인 가족관계($\beta=.297$, $p<.001$), 친구 유무($\beta=.238$, $p<.01$),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beta=-.174$, $p<.01$)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향점수 매칭 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행복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2.079	.184		11.323***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 여부	.022	.076	.018	.292	1.023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216	.046	.297	4.730***	1.013
	친구 유무	.286	.098	.238	2.927**	1.706
	교류하는 친구의 수	-.065	.066	-.080	-.990	1.685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170	.064	-.174	-2.662**	1.105
	취업 여부	.101	.079	.084	1.295	1.087

구분	변수	B	S.E.	β	t	VIF
	R^2			.173		
	adj. R^2			.150		
	Durbin-Watson			2.024		
	F			7.437***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성향점수매칭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주요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성향점수매칭 분석 후 매칭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가족과의 관계, 친구 유무, 교류하는 친구의 수), 차별 경험, 취업 여부를 기점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매칭 전과 후 모두 각 집단 간의 평균차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순수 평생교육의 효과만을 검정하기 위해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유사한 크기의 두 표본을 만들고자 하였다. 평균 차이를 분석할 때 양 집단 표본크기 차이가 큰 경우 평생교육 경험과 여타 다른 변수의 평균 분포가 달라지므로 비교가 정확히 어렵기에 비슷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경험집단 110명, 경험 없는 집단 348명으로 약 3배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있지만(통계자료 찾기),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0년 전의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의사는 있으나 이동 문제나 교육비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지만(김두영, 김호영, 홍재영, 2014),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 개선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향점수매칭 전보다 성향점수매칭을 한 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매칭 전에는 $\beta = .096$ 으로 통제변수 중 취업한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성향점수매칭 후에는 $\beta = .226$ 으로 취업한 경우, 가족관계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영향력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은 성향점수매칭 전과 후 행복감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매칭 후를 살펴본다면, 통제변수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는데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친구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까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등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목적이 심리적 만족(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과 삶 적응(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만큼 분명 평생교육 참여는 심리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습지향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긍정적 인지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오은경, 임원균, 2021). 이때 긍정적 정서는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5가지 요인 중 하나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행복감에는 평생교육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참여(강승원, 이해경, 2016), 여가 활동(정우영, 정지혜, 2020)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흥미 있는 분야를 익히고 배움으로써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이는 어떤 요소보다 자아존중감에 큰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심리적 요소인 행복감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 정서, 활동 중의 몰입, 감사나 수강생과의 긍정적인 관계,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스스로 생각했던 성취가 뒤따라야 한다. 이 외에 평생교육을 경험이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요인이 무엇일까? 인터뷰에서 개인의 의견을 진술한 내용과 통계적 검증에서 오는 연구방법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행복감이 본 연구 자료에서는 3점의 단일척도로 인해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평생교육 경험이 행복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이유를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유추하면, 평생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은 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학습환경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개인별 특성 및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조창빈, 김주영, 2016), 장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는 참여자(권혁상, 곽승철, 2018; 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송인애, 오민석, 20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그 예이다. 행복감과 자기계발을 목적(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함께 수업하는 참여자와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편의를 기관 예산 범위 내에 보장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행복감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연구는 심리적 역량을 강화했다는 결과를 보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구하는 메타분석을 시도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추후에는 평생교육 참여 여부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평생교육 연구로 발달장애인에게 행복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보내는 방법으로 평생교육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승원, 이해경 (2016). 고령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농촌과 도시지역 비교. **사회과학연구**, 40(2), 31-56.
- 강승원 (2015).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0(2), 117-126.
- 강충만, 김경신 (2024). 수화를 활용한 무용 창작 프로그램(DCD)이 성인청각장애인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95(3), 19-37.
- 고이슬, 전지혜 (2024).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발달장애연구**, 28(1), 65-83.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혁상, 곽승철 (2018). 자폐성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통한 의미.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477-500.
- 권현정, 조용운, 고지영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301-326.
- 김경희, 간기현 (2023).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우울, 행복감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1), 81-109.
- 김기룡 (2020). 중도 지체·뇌병변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 영향 변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3(3), 77-96.
- 김대룡 (2018). 자기주도 학습의 직업탐색 교육이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4(1), 77-100.
- 김대룡 (2019). 역할부여를 통한 자립생활교육이 발달장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4), 227-251.
- 김동원 (2014). 파크골프 참여가 지체장애인의 심리적 웰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8(4), 187-205.
- 김두영, 김호연, 홍재영 (2014).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199-228.
- 김용수 (2012). 독서치료를 활용한 사회통합인성프로그램이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자아존중

- 감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1-23.
- 류재연 (2017).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저해 요인 분석. **통합교육연구**, 12(1), 145-162.
- 명소연, 김두영 (2017).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8(3), 1-23.
- 박단아, 최진혁 (2024). 발달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6(1), 151-172.
- 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요구.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연구**, 10(1), 1-26.
- 박수선, 심다연 (2024). 취업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1), 1-11.
- 박현숙, 양희택 (2013).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2, 67-84.
- 법제처 (2024). 평생교육법.
- 법제처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송인애, 오민석 (2019). 지체·뇌병변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449-471.
- 신윤수, 이숙향 (2024). 실천중심 성격감정 프로그램이 전공과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결정, 자아존중감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40(1), 99-133.
- 심석순 (2019).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거주환경에 따른 평생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사례관리연구**, 10, 31-49.
- 오은경, 임원균 (2021).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긍정적 인지정서상태 영향요인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7(1), 135-156.
- 유설희, 김지혜, 임준 (2022).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장애인, 장애인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9(5), 15-28.
- 유향금 (2020). 중고령 장애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621-632.
- 이나연, 임예림, 백성욱, 홍세희 (2024).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적성적합성에 따른 다집단분석 및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4(1), 95-122.
- 이삼미, 정연수 (2022). 성인 발달장애 직장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질적

- 연구. **직업재활연구**, 32(3), 23-49.
- 이혜림, 박승희 (2018). 발달장애학생 간 비디오모델링을 활용한 상급학생교수가 중학생 학습자의 의복정리기술과 상급학생 교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3(1), 49-81.
- 오은경, 임원균 (2021).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긍정적 인지정서상태 영향요인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7(1), 135-156.
- 오지원, 여영훈 (2023). 근로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9(59), 215-239.
- 이미정, 연평식 (2024).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증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8(3), 33-48.
- 이민경 (2024). 중고령 장애인 1인가구가 인식하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6(2), 99-116.
- 이삼미, 정연수 (2022). 성인 발달장애 직장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질적 연구. **직업재활연구**, 32(3), 23-49.
- 이옥인, 박은영, 신인수 (2011).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3), 101-121.
- 이채식, 김명식 (2019). 임금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21(2), 209-230.
- 전리상 (2023). 장애인근로자의 차별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발달장애연구**, 27(4), 347-358.
- 정재원 (2022). 콜라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3), 193-225.
- 조인식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250, 1-17.
-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1), 195-217.
-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7(4), 1-24.
- 조혜정, 윤명숙 (2016). 중증장애인의 장애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유형 및 취업유무 집단비교. **한국장애인복지학**, 33, 67-90.
- 최경희, 오승환 (202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885-902.

- 하민진, 김정기, 전병운 (2019). 자기주도적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성인의 자기결정기술 사용 변화.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5(2), 55-8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한눈에 보는 2023 장애인 통계.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황정우 (2014). 시설입소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 199-224.
- 황정우, 유수현 (2013). 정신장애인의 행복감 영향요인 연구. **재활심리연구**, 20(2), 191-222.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Davis, W. (1981). A theory of happines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8(2), 111-120.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2000). *Learning for Life: Paper on Adult Education*. Dublin: Stationery Office.
- Mecca, A. M. (1989).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CA: Simon and Schuster.
- Tesser, A. (2001). Self-esteem.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raindividual processes*, 479-498.

논문 투고 : 2024.9.27.	논문 심사 : 2024.11.22.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Analysis of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 Focusing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HyeYeong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lifelong education can affect the self-esteem and happines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58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responded to the variables to be used in the 2023 Work and Life Cohort Survey Panel Data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e analysis method wa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5.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was divided into a group that experienced lifelong education and a group that did not experience lifelong education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and the equality between the groups was secured through a t-test. Second, lifelong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nalysis after

*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personality score matching confirmed that it had a greater positive effect than other factors. Third, the experience of lifelong education did not affect the happi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proven that lifelong education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n other factors, and while it did not affect happiness, it suggested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quality lifelong education in the future.

Keywords: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self-esteem, happiness, propensity score matching